

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법 개정 방안 토론회

8 변백선 기자 | ⓒ 승인 2013.04.24 16:58



▲ 24일 오후 서울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'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법 개정 방안 토론회'가 열렸다. ⓒ 변백선 기자



▲ 24일 오후 서울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'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법 개정 방안 토론회'가 열린 가운데 민주노총 양성운 위원장직무대행이 여는말을 통해 "산재사망 처벌강화, 하청 산재 원청 책임강화 더이상 선언에 그쳐서는 안된다"며 "민주노총도 입법으로 가는 그 길에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"고 밝혔다. ⓒ 변백선 기자



▲ 24일 오후 서울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'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법 개정 방안 토론회'가 열린 가운데 민선노동위 강문대 변호사가 '산재사망 처벌실태 및 특별법 제정방안'에 대한 발제를 하고 있다. © 변백선 기자



▲ 24일 오후 서울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'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법 개정 방안 토론회'가 열리기 앞서 참가자들이 산재사망한 노동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. © 변백선 기자



▲ 24일 오후 서울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'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법 개정 방안 토론회'가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'중대 산업안전 사고 처벌 결과 현황' 자료를 보고 있다. © 변백선 기자



▲ 24일 오후 서울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'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법 개정 방안 토론회'가 열린 가운데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이 '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방안'에 대한 발제를 하고 있다. © 변백선 기자



▲ 24일 오후 서울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'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법 개정 방안 토론회'가 열린 가운데 곳곳에 산재에 관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. © 변백선 기자



▲ 24일 오후 서울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'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법 개정 방안 토론회'가 열린 가운데 많은 노동자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. © 변백선 기자



변백선 기자 n7349794@naver.com